



## 성경 주석에 대한 칼빈의 해석방법:

### 리차드 갬블의 논제인 “간결성과 용이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Calvin's Hermeneutical Methode of Bible Commentary: Criticism on Richard Gamble's Thesis, "brevitas et facilitas")

작성자: 황대우

들어가면서

최근 칼빈 연구에서 칼빈의 해석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기여한 학자들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리차드 갬블(Richard Gamble)이다. 그는 “간결성과 용이성(Brevitas et facilitas)”을 칼빈 자신의 고유한 성경 주석 방법으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며, 그것이 그의 주장을 충분히 지지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갬블은 두 편의 그의 소논문인 “간결성과 용이성: 칼빈의 해석학 이해에 대하여”<sup>1)</sup>와 “칼빈에게 있어서 해석과 방법”<sup>2)</sup>에서 칼빈의 해석방법을 “간결성과 용이성”으로 정의한다.<sup>3)</sup> 갬블은 자신의 이와 같은 정의의 근거를 1540년에 출판된 칼빈의 첫 주석인 [로마서 주석]의 헌정사<sup>4)</sup>에서 찾는다. 칼빈은 이 헌정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 한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 우리가 가장 좋은 성경주석법(optimum enarrandae Scripturae genus)에 관해 서로 긴밀하게 심사숙고했을 때, 당신을 기쁘게 했던 그 방법(ratio)이 나에게도 역시 다른 것들보다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주석가의 주된 미덕(praecipua interpretis virtus)은 간단명료함(perspicua brevitatis: 명료한 간결성)<sup>5)</sup>에 있다고 생각

1) “Brevitas et facilitas: Toward an Understanding of Calvin's Hermeneutic,” in R. Gamble, ed.,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칼빈과 칼빈주의에 관한 소논문들. 이후 ACC로 표기.) Vol. 6: *Calvin and Hermeneutics*(칼빈과 해석학), 33-49. 이 소논문은 갬블이 [웨스터민스터신학지(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7호(1985), 1-17에 게재한 것이다. 이후 “갬블 1”으로 표기.

2) R. Gamble,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in ACC 6, 51-63. 이 소논문은 갬블이 [웨스터민스터신학지] 49호 (1987), 153-165에 게재한 것이다. 이후 “갬블 2”로 표기.

3) 이 논지에 대한 선구자적인 작업은 독일의 구약학자요 조직신학교수인 한스-요아킴 크라우스에 의해 이미 1968년에 이루어 졌고, 1971년 파커에 의해 보다 상세하게 논의되었다. 참고. H.-J. Kraus, “Calvins exegetische Prinzipien(칼빈의 해석원 리),” in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교회사를 위한 잡지) 79/3 (1968), 329-341; T.H.L. Parker,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칼빈의 신약주석들), John Knox: Kentucky 1993, 87. 이후 “파커 신약주석”으로 표기.

4) 저자인 칼빈은 자신의 첫 주석을 바젤(Basel)의 개혁가 외콜람파디우스(Oecolampadius)의 후계자요 바젤대학의 교수인 시몬 그리나에우스(Simon Grynaeus)에게 헌정했다. 헌사의 표제는 다음과 같다: “존 칼빈이 매우 고매하신 분이요 성경교사이신 시몬 그리나에우스께(Iohannes Calvinus Simoni Grynaeo viro ornatissimo S.D.)” 여기서 S.D.는 성경교사 내지는 성경박 사로 번역될 수 있는 “Scripturae Doctore”의 줄임말인 것 같다. 그리고 Grinaeus라는 이름은 때로 Grynée로도 표기된다. T.H.L. Parker, ed., *Iohannis Calvini Commentarius in Epistolam Pauli ad Romanos*(바울의 로마서에 대한 요한 칼빈의 주석), E.J. Brill, Leiden 1981. 이후 “파커편집”으로 표기. 한글 번역을 위해 다음 참고. [칼빈성경주석] 신약 제7권 (성서 교제간행사, 서울 1995), 21-25.

5) 크라우스는 이것을 그가 제시한 칼빈의 “8가지 해석원리(acht exegetische Prinzipien)” 가운데 첫째 원리로 꼽는다. 그는 이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크라우스, 335: “Perspicua brevitatis und simplex docendi ratio sind synonyme Formulierung ein und desselben, Klarheit erstrebenden Prinzips(명료한 간결성과 단순한 교수법[= 가르치기 위한 단순한 방법]은 명료성을 획득한 하나의 동일한 원리의 동의어적 형식들이다.)” 파커에 의하면, “명료한 간결성”이란 쉽고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일종의 저술형태(a style of writing)”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되며, 주석가가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려는 자신의 과업을 성취하는 “수사학적 방법(the rhetorical method)”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참고. 파커 신약주석,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의 [= 주석가의] 거의 유일한 임무(*prope unicum illius officium*)는 [저자가] 설명하기 위해 취한 저자 [자신]의 정신(*mens scriptoris*)<sup>6)</sup>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 주석가가] 독자들을 그것 [= 저자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키는 만큼, 그는 그 자신의 목적으로부터 이탈하거나, 혹은 분명히 어느 정도 그 자신의 한계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런 연구법으로 신학을 돕기 위해 준비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용이성(*facilitas*)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애호가들로 하여금 장황한 주석들(*prolixi commentarii*)에 지나치게 붙들리지 않도록 저술하는 사람이 있기를 소원했습니다.”<sup>7)</sup> 여기서 갬블은 칼빈이 주석가의 임무로 언급한 “성경저자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호소하면서, 이 목적의 성공은 “독자를 저자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불필요한 요소의 제거”에 달린 것으로 해석한다.<sup>8)</sup> 이것에 근거하여 갬블은 추구되지 말아야 할 주석방법<sup>9)</sup>과 추구되어야 할 주석방법<sup>10)</sup>을 구분한다.

또한 갬블은 로마서 헌정사에 나타난 칼빈의 판단을 근거로 칼빈이 왜 멜랑흐톤과 부씨의 방법론을 따르기를 거부했는지를 설명한다. 즉 갬블에 따르면 칼빈은 한편으로 주제를 따라 다룬 멜랑흐톤의 주석방법이 너무 간결하다는 점에서 거부했고, 반면에 부씨의 주석방법은 너무 장황하다는 점에서 반대했다는 것이다. 갬블에 의하면 칼빈은 “간결성과 용이성”이라는 자신이 선호한 주석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의 두 사람의 주석방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갬블의 주장에 따르면 칼빈이 선택한 “간결성과 용이성”이라는 주석방법은 그 자신의 고유한 해석방법이다. 갬블은 그 이유를, 비록 그의 해석방법에 끼친 인문주의의 영향과 “간결성”이란 개념이 고대 수사학에 빚진 점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인문주의적 수사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성경적 수사학(*biblical rhetoric*)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찾는다.<sup>11)</sup> 그러므로 칼빈은 이와 같은 자신의 방법론이 다른 동료개혁가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방법론보다 우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갬블은 주장한다.<sup>12)</sup> 결론적으로, 칼빈의 신학적 방법을 “중도(*via media*)”로 제시한 베틀즈(*Battles*)의 예를 따라,

91.

- 6) 이것은 크라우스의 8가지 해석원리 가운데 두 번째이다. 그는 자신의 글 335에서 “저자의 정신”을 “저자의 뜻(*consilium auctoris*)”으로 해석한다. 파커에 따르면 이것은 주석가가 본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탈선할 경우 저자의 의도로부터 탈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파커 신약주석, 92.
- 7) 파커편집, 1(= 칼빈전집 10권 하(CO 10b), 402이하.): “*Memini, quum ante triennium de optimo enarrandae Scripturae genere inter nos familiariter commentaremur, eam quae plurimum tibi placebat, rationem mihi quoque prae aliis probatam tunc fuisse. Sentiebat enim uterque nostrum, praecipuam interpretis virtutem in perspicua brevitate esse positam. Et sane quum hoc sit prope unicum illius officium, mentem scriptoris, quem explicandum sumpsit, patefacere: quantum ab ea [= mens scriptoris] lectores abducit, tantundem a scopo suo aberrat, vel certe a suis finibus quodammodo evagatur. Itaque cupiebamus ex eorum numero, quibus in hoc laboris genere theologiam iuvare hodie propositum est, unum aliquem extare qui et facilitati studeret, et simul daret operam ne prolixis commentariis studiosos ultra modum detineret.*”
- 8) 갬블 1, 34: “We should note here that Calvin sees the goal of a commentator as unfolding the mind of the biblical writer: succeeding in this goal means the deleting of superfluous material which may lead the reader away from the meaning of the author.”
- 9) 논문의 세 번째 소제목: “III. In Search of Method - What Should Not Be Followed,” 갬블 1, 36-38. 갬블은 여기서 이 범주에 드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에라스무스와 루터, 멜랑흐톤, 부씨의 주석방법을 든다. 갬블은 칼빈이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의 방법도 전적으로 따를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이들 모두의 주석방법이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5: “All of these methods had serious problems in Calvin's opinion.”
- 10) 논문의 세 번째 소제목: “III. In Search of Method - What Should Be Followed,” 참고. 갬블 1, 7.
- 11) 갬블은 두가지의 예를 들면서 인문주의자 혹은 인문주의적 수사학자로서의 칼빈과 성경 주석가로서의 칼빈 사이에 비연속성(*discontinuity*) 즉, 세네카의 해석자로서의 칼빈과 성경해석자로서의 칼빈 사이에는 방법의 불일치(*the uniformity of method*)가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갬블 1, 41-44.
- 12) 갬블 1, 49: “... yet it should be emphasized, ..., that Calvin certainly viewed his methodology as different from and superior to Melancthon's and Bucer's.” 갬블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파커의 견해에 의존한다: “... Calvin is completely convinced of the superiority of the method he himself used. (칼빈은 자신이 사용한 방법의 우월성을 전적



갬블은 칼빈의 해석방법을 “결핍(defect)”과 “지나침(excess)”의 “중도”로 정의한다.<sup>13)</sup>

이와 같은 갬블의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첫째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칼빈이 과연 그리나에우스에게 바친 [로마서] 헌정사에서 자신의 주석의 유용성을 변호하기 위해 주장한 “간결하고 용이한 주석법”이 당시 동료 개혁가들의 주석법 보다 우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자신의 주석법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동료 개혁가들의 주석을 비판했는가? 갬블의 대답은 분명 “예”일 것이다. 그러나, 칼빈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그 대답은 “아니오”이다. 만일 우리가 동료개혁가들의 주석에 대한 칼빈의 평가를 그 자신의 의도에 따라 주의 깊게, 그리고 갬블에 의해 인용되지 않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읽는다면, 갬블이 자신의 주장을 위해 인용한 칼빈의 말과 그것에 대한 갬블의 인용과 해석이 칼빈 자신의 의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결성에 대한 사랑(amor compendii)<sup>14)</sup>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sup>15)</sup> ... 누구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억지로 자기 자신의 법칙 아래 예속시키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참으로 이 사람은 [= 독자는] 각기 자신의 판단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결성(brevitas)을 좋아하는 우리가 성경을 주석함에 있어서 보다 방대하고(copiosus) 방만한(fusus) [주석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배척하거나 경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 [= 방대함을 선호하는 주석가들] 역시, 비록 그들이 [우리의 주석을] 지나치게 압축되고(pressus) 간결한(conciscus)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를 용납할 것입니다.”<sup>16)</sup> 여기서 우리는, 갬블의 주장대로 칼빈이 간단명료한 주석법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주석법이 다른 주석법에 비해 배타적인 우수성을 지닌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칼빈은 두 주석법, 즉 장황한 주석법과 간결한 주석법이 독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될 수 있고, 서로는 서로를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심지어, 칼빈이 동료 개혁가들의 주석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곳에서조차도 그 자신의 주석방법이 상대적인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는 암시를 발견할 수 없다. 칼빈은 자신의 동료들의 작품에 대한 언급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 한다: “저는 선진들 [= 고대 주석가들]에 관해서는 침묵하겠습니다. ... 그리고 심

으로 확신했다.” (파커 신약주석, 86-87.).

13) 갬블 2, 58-62. 여기서 갬블이 제공하는 도표에 의하면 결핍의 극단은 교황주의자이며, 지나침의 극단은 인문주의자이다. 그리고 벨랑흐톤은 결핍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부쎈는 지나침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칼빈은 중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갬블의 판단이다. 그러나 갬블은 인문주의 방법론을 도입한 벨랑흐톤이 어떻게 교황주의자들과 동일한 “결핍”이라는 범주에 내포되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14) 파커는 “compendium(간결성, 혹은 요약)”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문체의 부드러움(smoothness of style)”이 아니라, “단순성(simplicity)” 혹은 “쉽게 이해되는 것(what is easily understood)”이라고 지적한다. 쥐라르탱에 의하면 그 라틴어 단어는 “아름다움이 없는 간결성(une brièveté sans beauté)”을 의미하는 전문용어이다. 가녹지와 쉘트는 “compendium”이란 단어가 일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현대적 언어사용의 의미에서 어떤 일정한 문학 장르(eine ganz bestimmte literarische Gattung im Sinne unseres heutigen Sprachgebrauchs)”가 아니라, “단순히 일과 시간의 절약 혹은 단축(einfach die Ersparnis oder Abkürzung von Arbeit und Zeit)”이라고 지적한다. 참고. 파커 신약주석, 87; B. Girardin, *Rhétorique et théologique. Calvin, Le Commentaire de l'Épître aux Romains*(수사학적이고 신학적인. 칼빈, 로마서 주석), Beauchesne: Paris 1979, 206; A. Ganoczy & S. Scheld, *Die Hermeneutik Calvins*(칼빈의 해석학), Franz Steiner Verlag: Wiesbaden 1983, 121.

15) 칼빈은 1539년 자신의 [기독교강요] 라틴어 개정판 서문에서 “compendium”의 원리에 따라 미래에 있을 자신의 주석 작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서문의 문구는 1559년 라틴어 최종판의 수정된 서문에서도 삭제되지 않았다. 여기서 칼빈은 자신이 추구하는 간단명료한 주석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교리에 대해 길게 논하지 않는 것과 연관된다. 칼빈은 의도적으로 주석과 자신의 [강요]를 분리시켰다. 즉 교리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기독교강요]에서 다루기를 원했던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주석은 논증적일 필요가 없다고 간주했다. 이 점이 칼빈과 부쎈 주석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부쎈는 교리적인 요소를 따로 다루지 않고, 자신의 주석서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 참고. OS 3, 6; 한글번역: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상, 생명의말씀사: 서울 1989, 15. 칼빈의 해석학에 대한 부쎈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가녹지/쉘트, 76-89; J.E. Kok, “The Influence of Martin Bucer on John Calvin's Interpretation of Romans: A Comparative Case Study(존 칼빈의 로마서 해석에 대한 마르틴 부쎈의 영향: 비교연구),” (Ph.D. diss., Duke University, 1993.). 율 꼭(Joel Kok)의 박사학위논문은 살펴보지 못했다.

16) 파커편집, 1.



지어 오늘날 살아계신 분들 [= 주석가들]도 모두 거명하여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뛰어난 저술을 제공한 사람들에 관해 제가 생각하는 바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은 칼빈이 멜랑흐톤과 불링거와 부썬을 당대의 어떤 다른 사람들 보다도 뛰어난 주석가들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서 칼빈은 이전의 주석가들에 비해 뛰어난 멜랑흐톤의 학자다움을 칭송하고, 불링거의 주석이 가진 특징인 “교리에 대한 쉬운 해설(*conjuncta cum doctrina facilitas*: 교리에 연결된 용이성)”을 칭송하고, 마지막으로 부썬의 학자다움과 그의 주석을 화려한 단어들로 높이 평가한다.<sup>17)</sup> 그리고 심지어 칼빈은 이와 같이 훌륭한 동료 주석가들과 경쟁심을 품는 것은 “지나치게 고약한 질투심(*nimis improba aemulatio*)”일 뿐이라고 경고한다.<sup>18)</sup>

칼빈은 [로마서주석]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교회의 공적 선(*publicum Ecclesiae bonum*)”을 이끌어내는데 있다고 설명한 다음 조심스럽게 세 사람의 동료 개혁가들의 주석에 대해 언급한다. 칼빈은 그 가운데 멜랑흐톤과 부썬의 주석에 대해서만 논평하고 있다. 칼빈에 따르면, 멜랑흐톤의 주석이 가진 단점은 “최대한 필수적인 주제들(*maxime necessaria capita*)”만을 다룬데 있고,<sup>19)</sup> 부썬 주석의 단점은 바쁜 사람들이 읽기에는 너무 장황하고(*prolixus*), 주의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심오하다(*sublimis*: 탁월한)는 점이다.<sup>20)</sup> 특히 부썬 주석의 문제점은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읽어내기(*exiguo tempore perlegere*)에는 지나치게 방만하다(*fusus*)는 것이다.<sup>21)</sup> 칼빈은 이런 단점들을 감안하여 시간을 크게 빼앗기지 않고도(*non magna temporis iactura*: 시간의 많은 희생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간결하게 주석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자신의 주석의 특징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칼빈은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석가들의 해석의 다양성(*interpretationum varietas*)으로 인해 성경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해에 있어서 “영구적인 일치(*perpetua consensio*)”를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하다는 점이다. 칼빈은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 한번도, 개인이 모든 부분에 걸쳐 충분하고 완전한 지식들(*plena perfecta que omni ex parte intelligentia*)을 구비할 만큼, 그와 같은 큰 축복으로 자신의 종들의 자격을 인정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계획에 따라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분께서, 먼저, 우리를 겸손(*humilitas*)에, 다음으로, 형제의 교제를 위한 열심(*communicationis fraternae studium*)에 붙들어 두신다는 것입니다.”<sup>22)</sup> 여기서 우리는 동료 개혁가들의 주석에 대한 칼빈의 평가가, 갠블이 해석하는 것처럼, 결코 부정적이지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헌정사에 나타난 칼빈의 모습은 자신의 주석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독선적인 주석가를 연상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수줍은 아이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시종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칼빈의 태도를 날카로운 비

17) 과거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세 개혁가의 로마서주석 방법론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참고. 파커 신약주석, 60-84; T.H.L. Parker, *Commentaries on Romans 1532-1542* (1532-1542년 사이의 로마서 주석), T.&T. Clark: Edinburgh 1986, 1-24 와 34-62.

18) 파커편집, 2.

19) 멜랑흐톤은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의 독특하고 고유한 자리들(*Continet praecipuos et proprios locos doctrinae christianae*)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그의 판단은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이해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참고. R. Stupperich, ed., *Melanchthons Werke in Auswahl* V, 30. 그러나 [로마서]에 대한 멜랑흐톤의 주석방법은, 파커의 날카로운 분석처럼, 루터의 중세적 방법을 따르지 않고,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 루돌프 아그리콜라(*Rudolf Agricola*)의 새로운 수사학 방법을 따르고 있다. 참고. T.H.L. Parker, *Commentaries on Romans 1532-1542*, 1.

20) 이와 같은 칼빈의 판단은 부썬이 그의 [로마서주석]에서 많은 교부들의 해석을 장황하게 인용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견해를 “*Observatio*(주의, 혹은 규칙)”라는 주제에 번호를 정해 결론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주석한 것에서 기인된 것이다. 참고. M. Bucer, *Metaphrasis et enarratio in epist. d. Pavli apostoli ad Romanos...*, Basileae:Petrvn Pernam 1562.

21) 파커편집, 2-3.

22) 파커편집, 3.



관가의 모습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갬블이 주장하는 것처럼, 칼빈이 자신의 “간결성과 용이성”을 “성경의 수사학적 방법”의 간결성으로 이해했는가 하는 점이다.<sup>23)</sup> 과연 칼빈이 자신의 주석 방법론을 “일종의 성경적 해석학”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방법론을 다른 주석가들의 방법론과 차별화했는가?<sup>24)</sup> 갬블은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써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인문주의자로서의 칼빈과 성경주석가로서의 칼빈 사이에 불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칼빈이 “무익한 수사학(rhetorique frivole: 천박한 수사학)”과 “간결성과 용이성”이라는 성경적 수사학을 대립 구조로 설정한다는 것이다.<sup>25)</sup>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갬블의 논증은 빈약하다. 또한 그는 연속성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는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갬블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에 있다. 갬블이 지적한 것처럼 칼빈은 성경이 “보다 화려하게 빛나는 웅변(splendidior eloquentia illustrata)”으로 구성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학자나 철학자들이 지닌 “웅변의 힘(vis eloquentiae)”보다 “훨씬 강력한 진리의 힘(potentior Scripturae sacrae vis veritatis)”을 발휘한다고 말한다.<sup>26)</sup> 칼빈에 따르면 이것은 “성경의 수사학(eloquentia Scripturae sacrae)” 혹은 “성령의 수사학(eloquentia Spiritus sacri)”라고 불릴 수 있다. 그러나 갬블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칼빈은 이 성경의 수사학을 문체나 말의 단순함보다는 “성령의 위엄(Spiritus maiestas)”에서 찾는다. 칼빈이 “성경의 수사학”이라 부른 것은 그가 성경을 세상의 교묘한 수사학과 대조되는 간결한 방법으로 기록된 책으로 간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통일성 있게 기록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는 문체(dicendi genus)가 웅변적(elegens)이고 화려한(splendidus)” 선지서들 뿐만 아니라, “거칠고 세련되지 않은 스타일(rudis et crassus stylus)”로 된 선지서들도 “수사법(eloquentia)”에서는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27)</sup> 칼빈의 주장대로라면 경박한 수사학과 대조되는 성경의 수사학은 문체와 스타일이 간결하냐 장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적이냐 신적이냐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즉 칼빈은 성경적 수사학을,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수사학적 힘의 근원도 조야한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기라는 점에서, 세상의 수사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령의 수사학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갬블의 주장과는 달리, 칼빈이 “간결성”을 자신의 고유한 해석 방법으로 이해한 것과 무관하다. 또한, 갬블이 칼빈의 디모데후서 1장 설교에서 인용한 “천박한 수사학”이란 용어는 일차적으로 성경의 기록이나 성경주석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설교”와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용어는 교사와 목사의 가르침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방법을 논하는 문맥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며, 또한 칼빈이 그 용어를 “효과적인 말”로 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8)</sup> 이와 같은 것

23) 갬블 1, 48: “Brevitas et facilitas, although in part a Renaissance ideal, rightly summarizes the rhetorical method of the Bible as Calvin understood it.”

24) 갬블 49: “He [=Calvin] had ascertained what he thought was a biblical hermeneutic that could be applied to his own exegetical methodology; he was cognizant as well of the faults of his contemporaries.”

25) 바르스(Baars) 교수는 네덜란드의 아펠도른(Apeldoorn)에 소재한 기독교개혁신학교 신약학을 담당했던 더 파위스트(J. de Vuyst) 교수의 은퇴 논문집에 기고한 다음과 같은 자신의 글에서 이와 같은 갬블의 불연속성과 극단적 대조에 대한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참고. A. Baars, “Bondig en toch helder. Enkele opmerkingen over de uitdrukking ‘perspicua brevitatis’ bij Calvin(간결하지만 또한 명료하게. ‘명료한 간결성’이라는 칼빈의 표현에 대한 몇 가지 제언),” in J.W. Maris & H.G.L. Peels, ed., *Onthullende woorden*(계시하는 말씀), Leiden: J.J. Groen en Zoon 1997, 9-18. 바르스 교수는 특히 12에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근거로 칼빈이 결코 수사학의 웅변술을 복음의 가르침과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르게 제시하고 있다.

26) 강요. 1-8-1. 참고. OS 3, 71이하.

27) 강요. 1-8-2. 참고. OS 3, 72-73.

28) CO 54, 70: “... que nous cognoissions là qu'il n'y a point une rhetorique frivole, que ce n'est point un langage affecté, qu'il n'y a point des speculations extravagantes, mais une pure simplicité, comme nous la voyons aux Prophetes(우리가 아는 것은 결코 일종의 천박한 수사학, 즉 무의미한 사변에 속하는 효과적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선지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일종의 순수한 단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근거로 갬블은 “천박한 수사학”을 세상의 수사학으로 정의하며, 그것을 칼빈이 말하는 성경적 수사학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주하면서, 마치 칼빈이 그 세상의 수사학 자체를 성경의 진리와 대립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묘사한다. 이와 같은 갬블의 분석은 확실히 그의 잘못된 전체에서 기인된 논리의 비약이다. 칼빈은 어디에서도 수사학 자체를 성경 혹은 복음의 가르침과 대립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만일 갬블의 주장처럼 칼빈이 세상적 수사학 자체와 성경의 가르침을 대립관계로 보았다면 아마 그의 일반은총론은 내적 모순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 것이다. 오히려 칼빈은 수사학의 웅변술을 인간이 값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인 “은사”로 간주한다.<sup>29)</sup>

아마도, 칼빈이 스스로 간결한 주석방법을 선호했으며 주석가의 거의 유일한 미덕이 저자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갬블은 칼빈 자신이 자신의 방법만이 저자의 의도를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확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sup>30)</sup> 따라서 갬블에 의하면, 칼빈 해석방법론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파커의 견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로, 방법은 단지 목표에 이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최종적인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해되고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설명되는가 하는 것은 부차적이다. 그것은 간결성(compendium)에 의해서처럼 장황한 주석들에 의해서도 충실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sup>31)</sup> 이와 같은 파커의 견해에 대한 갬블의 비판 배후에는 칼빈이 스스로 자신의 방법만이 저자의 정신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갬블의 전체가 자리 잡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칼빈 자신이 선호한 간결한 주석방법은 단순히 방법만의 문제가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을 의미해야 한다. 또한 칼빈이 자신의 방법이 다른 동료 개혁가들의 것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했다면 분명 그는 불링거의 주석방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이 불링거에 대해 단 한 마디도 비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칼빈은 불링거의 주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음으로는 불링거인데, 그도 역시 자신의 공로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리와 연관된 간결성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그는 그것 [=간결성]으로 크게 인정받았습니다.”<sup>32)</sup> 우리는 여기서 “교리와 연관된 간결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sup>3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칼빈이 이상적인 주석방법으로 간주한 “간결성”이라는 주석 방법의 범주에 불링거의 주석도 포함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sup>34)</sup> 여기서, 만

29) 수사학의 웅변술(eloquentia)과 복음의 가르침(doctrina Evangelii)과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대한 그의 주석에 잘 나타난다. 참고. CO 49, 319-322([고린도전서주석] 1장 17절).

30) 갬블 2, 60: “Why was Calvin's method of exposition the only legitimate one? Because only his technique avoided the extremes which were present in the other sixteenth century commentators.”

31) 갬블 1, 48. 참고. 파커 신약주석, 8. 파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갬블은 “This is actually not quite the case.”라고 반박한다. 갬블의 이러한 결론은 그가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히 크라우스의 다음과 같은 견해와 일치한다: 크라우스, 335: “Von diesem Skopus [= mentem scriptoris quem explicandum sumpsit patefacere] darf der Ausleger nicht einen Schritt weit abirren. Alle prolixi commentarii sind angesichts dieses Zieles als aberratio zu werten(이러한 목적[= [저자가] 설명하기 위해 취한 저자 [자신]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주석가는 지나치게 일탈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장황한 주석들은 이러한 목적에서 볼 때 일탈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확실히 칼빈의 의도를 성급하게 해석한 크라우스의 오해이다. 왜냐하면, 칼빈은 본문에서 독자를 저자의 정신으로부터 일탈시키는 것을 장황한 주석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칼빈의 의도는 단순히 주석가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저자의 의도를 꼭해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즉 칼빈은 간단명료한 주석만이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으며 그에 비해 장황한 주석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자의 의도를 꼭해시키게 된다는 식으로 논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문 번역은 각주 1번 참고.

32) 파커편집, 2.

33) 파커에 의하면, 불링거가 생각한 주석가의 미덕이란 “Brevity; literalness; faithfulness to the original; attention to the context; making the ancient Scriptures relevant to a new age; the correction of error” 등이다. 참고. 파커 로마서, 21. 같은 책 73에서 파커는 칼빈이 불링거의 방법에 상당히 빚진 것으로 추정한다.

34) 파커와 똑같은 주석방법과 양식 면에서 불링거와 칼빈 둘 다 “간단 명료한(lucid and brief)” 원리를 추구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참고. 파커 신약주석, 89 n.11; 파커 로마서, 22; J.E. Kok, “Heinrich Bullinger's Exegetical Method: The Model for Calvin?(하인리히 불링거의 석의방법: 칼빈의 모델인가?)”, in: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ra Reformation*(종교개혁시대의 성경해석), ed. by R.A. Muller & J.L. Thompson, William B. Eerdmans: Grand Rapids/Cambridge 1996, 244이하.프



일 이러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불링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석을 저술한 것이 아니라면,<sup>35)</sup> 칼빈이 생각한 “간단명료한 방법”은 칼빈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아마도 칼빈은 자신이 생각한 그 방법에 따라 성경을 주석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결심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칼빈 자신이 추구한 그 주석 방법만이 성경의 이상적인 주석법의 표본이라고 생각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그리나에우스와 함께 논의했던 그 이상적인 주석방법론을 자신의 [로마서주석]에서 성취했다고 확신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것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이다.<sup>36)</sup> 추구하고 성취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깬블의 평가는 분명 칼빈 자신의 의도를 넘어간다.

## 마무리

[로마서주석]에서 뿐만 아니라, 1539년판 [기독교강요]의 독자서문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칼빈이 “간결성”을 자신의 주석방법의 원리로 삼고자했던 것은 분명하다.<sup>37)</sup> 뿐만 아니라, 칼빈은 독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능한 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주석을 집필하는 일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 또한 사실이다. 아마도 그는 이 원리를 그의 로마서주석에 뿐만 아니라, 다른 주석에도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간결성과 용이성”이라는 그 원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단지 장황한 교리적 논쟁을 삼간다는 점과 주석가들의 상이한 주석 전부를 나열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달리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칼빈은 자신이 깨달은 간단명료한 주석방법만이 성경적 주석방법의 원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칼빈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 파커의 지적대로, 주석방법은 부차적일 수 있다.

칼빈이, 주석가라면 반드시 성경저자의 의도를 곡해시키는 일만은 피해야 하며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주

리츠 뷔쎄(Fritz Büsler)는 이와 같은 간단명료한 주석방법과 관련한 칼빈과 불링거 사이의 이론적인 일치를 인정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불링거가 칼빈주석의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참고. F. Büsler, “Bullinger as Calvin's Model in Biblical Exposition: An Examination of Calvin's Preface to the Epistle to the Romans(성경주석에 있어서 칼빈의 모델로서의 불링거: 칼빈의 로마서 서문에 대한 고찰),” in: ACC 6, 434-465.

35) 꼭(J. Kok)은 자신의 소논문에서 두 개혁가가 “간단명료”라는 동일한 주석방법의 원리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불링거가 칼빈의 성경주석의 모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에라스무스에 대한 두 주석가의 자세의 차이, 실제 로마서주석에 있어서 두 사람의 신학적 관심의 차이, 기독교 계시와 이방 철학의 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이 꼭이 제시하는 증거들이다. 그래서 꼭은 253-254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그들이[= 불링거와 칼빈]이 간결성과 명료성과 같은 석의 표준들에 관하여 동의하지만, 불링거의 단순한 설명에 대한 강조점은 칼빈의 교리적 정확성과 수정에 대한 강조점과 다르다.” 이와 같은 꼭의 결론은 불링거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칼빈의 성경주석의 모델이라고 주장한 뷔쎄의 견해 보다는 칼빈에게 끼친 불링거의 주석적 영향을 단지 이론적인 부분으로만 국한시킨 파커의 견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6) “그러나, 지금 저는,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였던 그것을 제 스스로 성취했다고 확신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시작했을 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시다.” 참고. 파커편집, 2: “Neque vero aut me assequutum nunc confido illud quod tunc nobis videbatur esse optimum: aut assequi me posse speravi, quum inciperem: ...”

37) 그리나에우스에게 바치는 칼빈의 [로마서주석] 헌정사를 근거로 “간결성”을 그의 주석방법으로 거론한 일은 파커와 크라우스와 같은 최근 학자들에 의해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이미 1840년에 에쎄르(Escher)는 로마서의 헌정사를 근거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의 두 번째 논지에서 이러한 원리를 지적했다: “우리는 칼빈, [즉] 바울의 로마서 헌정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해석의 전체에 동의한다: ‘해석자 [혹은 주석가]의 주된 미덕 [혹은 힘]은 명료한 간결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칼빈 해석학의 방법은 1909년에 어윈 더 롱(Irwin Hoch de Long)과, 이어 1917년에 루이 구마(Louis Goumaz)에 의해서도 역시 언급되고 있다. 참고. D.G. Escher, *Calvino, Librorum N.T. historicorum interprete* (신약 역사서들의 해석자, 칼빈에 관하여), Trajecti(Trajectum)에 지금의 Utrecht의 라틴어 지명: Robertum Natan 1840, 138: “Assentitur Calvino, in *Epistola dedicatoria*, praemissa interpretationi *Paulinae ad Romanos Epistolae*, praemissa: *praecipuam interpretis virtutem in perspicua brevitate esse sitam.*”; I.H. de Long, “Calvin as an Interpreter of the Bible(성경 해석자로서의 칼빈),” in: ACC 6, 134이하; L. Goumaz, *La Doctrine du Salut d'après les Commentaires de Jean Calvin sur le Nouveau Testament*(장 깔뱅의 신약주석에 따른 구원론), 63이하.



석하는 것이 교회에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방법만이 성경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최고의 성경 주석법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칼빈은, 어떤 방법으로 주석을 하든, 만일 그들이 저자의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주석가들은 서로를 인정해야 하며 서로 비난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심지어 칼빈은 경건한 주석가들 사이에도 해석의 차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칼빈의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갬블은 자신의 글을 통해 크라우스와 파커의 견해를 기초로 “간결성과 용이성”의 방법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칼빈 자신의 고유한 해석 방법론으로 확정짓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위해 갬블이 선택한 방법과 논증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칼빈은 자신이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한 간단명료한 주석법을 가장 우수한 성경 주석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성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 이상적인 주석방법이 성경적 수사학에서 도출된 것으로써 최상의 방법이라고 암시하는 곳도 찾아볼 수 없으며, 나아가 자신의 주석방법이 다른 어떤 것보다 (특히 멜랑흐톤과 부씨의 방법보다) 우월한 것임을 입증하는 어떤 언급도 칼빈의 글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갬블의 주장과는 달리, 동료 개혁가들, 특히 멜랑흐톤과 부씨의 주석 방법에 대한 칼빈의 평가는 지나치게 비판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sup>38)</sup> 단지 칼빈은 어느 정도 독자들의 입장을 감안한 이상적인 주석법, 즉 성경 저자의 정신이 분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주석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 원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자신의 주석이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유익을 끼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논하고 있을 뿐이다. 거기서 칼빈은 멜랑흐톤과 부씨의 주석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 자신이 로마서주석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과 경쟁하려는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자신의 주석에 대한 정당성을 경쟁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의 기여 가능성에 호소하고 있다. 왜냐하면 칼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완전하고 충분한 지식을 허락하시지 않았고,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얼마든지 후배들이 선배들의 작업을 다듬고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칼빈은 결코 자신의 방법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만을 고집하는 좁은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칼빈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리는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칼빈은 “저자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 해석자의 첫째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서 간결하게 주석하느냐 장황하게 주석하느냐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는 확실히 부차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sensus literalis)”를 강조하고 선호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진정한 의미” 즉 “성경의 순수하고 단순한 의미”를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sup>39)</sup> 칼빈은

38) 이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폴 푸르만의 견해가 보다 정확하다. P.T. Fuhrmann, “Calvin, The Expositor of Scripture,” in: ACC 6, 113: “In his Exposition, therefore, Calvin purposely does not greatly depart from the Commentaries of Melancthon, Bullinger, and Bucer, because varying expositions diminish the majesty of the Word of God.”

39) 참고. *Ioannis Calvini opera exegetica* XVI, Geneve: Librarie Droz 1992, 106-107([갈라디아서 주석] 4장 22절): “Ego Scripturam uberrimum et inexhaustum omnis sapientiae[107] fontem esse fateor. Sed eius foecunditatem in variis sensibus nego consistere, quos quisque sua libidine affingat. Sciamus ergo eum esse verum Scripturae sensum, qui germanus est ac simplex, eumque amplectamur et mordicus teneamus. Fictitias expositiones, quae a literalis sensu abducunt, non modo negligamus tanquam dubias, sed fortiter repudiemus tanquam exitiales corruptelas(나는 성경이 모든 지혜의 풍부하고 무궁무진한 근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의 [= 성경의] 풍성함이 각기 자신의 욕구대로 찌맞추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하고 단순한 것이야말로 성경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옹호할 수 있고 끈질기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 의미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문자적인 의미로부터 이탈시키는 꾸며낸 해석들을 우리는, 의심스러운 것들로 여겨, 무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한 부패물들이라고 여겨 더욱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파커 신약주석, 102: “There is, then, ‘a true meaning of Scripture’. Scripture has an objective and constant meaning, and this is the genuinus sensus, the germanus sensus, the simplex sensus, the litteralis sensus.”; W. de Greef, *Calvijn en het Oude Testament*, Amsterdam: Ton Bolland 1984, 45-48.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중시한다. 즉 성경은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이 말하는 저자의 정신이란 단순히 인간 저자의 의도를 의미하기 보다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세의 사중적 성경 해석 방법론을 통한 의미의 다양성을 채택하기 보다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충실할 때 발견되는 의미의 단순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문자적인 의미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칼빈에게 있어서 저자의 정신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이다.<sup>40)</sup> 그러나 칼빈에 따르면 모든 주석가들은 예외 없이 이 원리를 고수해야 하지만, 어떤 주석가도 이 원리에 의해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주석할 수 있는 재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이견으로 분열되기 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어느 정도 존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연합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40) 칼빈이 풍유적 해석 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의 다양한 설명 가운데 풍유(allegoria)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칼빈이 풍유적 해석 방법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주석가들이 그 방법론을 통해 자기 스스로 만든 억지 해석을 마치 성경이 말하는 의미인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경의 풍유조차도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